

‘탈원전’ 시작도 안 했는데 한전 적자 ‘주범’으로 지목

원자재 가격 상승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원인

한전 적자 확대 문제가 탈원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원전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이에 값싼 전원대신 비싼 LNG 가동이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해 영업이익이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의원은 한전의 원전 거래금액이 줄고 LNG·석탄 발전의 거래금액은 늘면서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윤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들어서면서 전체 발전 중 32.4%(2017년 5월)나 차지했던 원전의 비중이 18.6%(2018년 1월)까지 떨어졌다”며 지난해 5월 76.2%였던 원전이용률이 올해 1월 56.2%로 급감한 데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전력거래금액을 비교해보면, 올해 전력거래금액은 지난해 20조581억원보다 1조8629억원 증가한 22조4439억원이다. 반면 올해 원자력 발전 거래금액은 지난해 4조5352억원보다 1조41억 원 적은 3조5311억원이다. 값싼 원자력 발전의 거래대금은 줄고, 고가의 LNG·석탄 발전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체 전력거래금액이 약 2조원 늘었다.

반면 정부는 한전 영업이익의 적자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전력구입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생산원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가량 가격이 올랐으며, 현재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전가동 정지횟수

2013년 가동정지 최대 원전수 : 23기중 107(43%)
: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2016년 가동정지 최대 원전수 : 24기중 117(46%)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2017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07(41%)
: 고리3·4, 신고리1, 한빛4, 월성1·2·4, 신월성2, 한울2·3

2018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37(54%)
: 고리3·4, 신고리1·2·3, 한빛4, 월성1·2·4, 신월성2, 한울2·3·5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영광원전에서 발견된 철관부식 등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예방정비로 인한 원전의 일시적 가동 중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운영과정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됐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실제 탈원전과 관련해 원전의 가동이 멈춘 것은 60만 kW 용량의 월성 1호기뿐이다. 탈원전의 핵심은 앞으로 건설될 원전 및 수명이 다한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달려 있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원전을 줄이고 LNG를 많이 들렀다면 민간발전 업계의 이익이 높아야 하지만, 민간도 발전을 돌리려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 대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탈원전과 한전의 적자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복합적인 요인을 특정사안으로 일반화할 경우 에너지정책에 대한 불신과 방향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팩트에 의한 정확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혁덕 기자 yuhd@

남부발전,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팔 걷어’

전사 통합 구매상담회 개최 맞춤형 상담 등 상생장 마련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전사 통합 구매상담회 개최로 협력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홍보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전사 통합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구매상담회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자재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행사에는 70여 개의 협력기업이 참여해 9개의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제품 소개와 판로개척의 기회를 가졌다.

남부발전은 전국 7개 사업소의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정보통신, 사무 관련 구매 실무담당자가 참여해 중소기업과의 맞춤 상담을 펼쳤다.

또 국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국민마이크’를 통해 남부발전의 경영전략 13대 목표와 정부혁신 14대 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문지 작성을 통해 구체적 요구사항을 발굴해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 2일차에는 발전소와 거래실적이 없는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구매상담회를 열었다. 남부발전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으며, 향후 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중소기업

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장애인 기업으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회사의 담당자는 “발전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담당자와의 연락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회사의 판매물품을 발전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업소의 구매담당자들과 제품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 남부발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이성 남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파악해 기업의 매출증대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



정이성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장과 직원들이 2018년 전사 통합 구매상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전설비 금속 3D프린팅 생산부품 실증

서부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박차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부품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3D프린팅 기술’을 선정하고 실증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3D프린팅 자재생산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3D프린팅 기술을 제조업 혁신의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서부발전 등 발전6개사,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해 ‘3D프린팅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전분야 3D프린팅 기술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서부발전은 현장실증 실적이 부족했던 과거 3D프린팅 연구개발의 경험을 교훈삼아 올해 다양한 발전기자재 품목을 3D프린팅 기술로 생산하고 직접 발전소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서부발전 발전기자재 금속 3D프린팅 실증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3D프린팅 자재에 대한 현장의 인식전환을 위한 1단계 사업, 발전설비 주요자재 신뢰성 확보를 위한 2단계 사업, 외산 단종부품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입증하는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로 다양한 품목과 재질로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사업으로는 발전기 축간 동력전달장치인 ‘Jaw Coupling’ 등 8종을 생산하고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3D프린팅 산업은 3D프린팅 기자재 업체, 금속 분말 생산업체, 3D도면 제작업체, 열처리 및 후처리 가공업체 등으로 나뉘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초기단계”라며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관련 노하우 축적은 물론이고 국내 3D프린팅 산업 생태계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3D프린터로 발전설비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한편 서부발전은 3D프린팅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발전설비 운용, 점검,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 기술혁신 관련 생태계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조재혁 기자 zha@

동서발전, 동국제강과 에너지 수요 관리 ‘맞손’

108MWh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사업 계약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과 동국제강(대표 장세욱)이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동서발전은 10일 오후 동국제강과 108MWh급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에너지 수요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동서발전은 자체개발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 모델인 ‘ESS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 사업을 활용해 10년 동안 동국

제강 인천제강소에 에너지절감 솔루션과 O&M을 제공한다. 동국제강은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ESS MSP 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 비즈니스모델로서 에너지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사용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ESS 구축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을 기업과 공유하는 솔루션 사업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에너지신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설비의 안정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재 UNIST와 공동개발 중인 세계 최초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전지 개발과 ICT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효율화 사업모델 실증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수급관리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혁 기자

KUMKANG ENERTECH
LED LIGHTING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한 종합 조명기구 제조업체로 체계적인 공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 과정이 논스톱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생산라인 및 검사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제공하고자 선진 조명 기술의 습득과 제품의 연구 개발 및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LED조명으로의 빠른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컨버터 등 핵심 기술들은 직접 개발·생산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절약형 제품·센싱·IoT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에너지는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라는 모토로 단순히 불을 밝히는 등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서비스 하여 어두운 곳까지 밝힌다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NERGY ECONOMIZE TYPE LIGHTING FIXTURE
(주)금강에너지 “조달형 우수제품”
(지정번호: 2013128 - LED등기구 / 황광중기부)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리튬이온 2차전지를 사용함으로써 펌프가 OFF된 대기상태에서 필요한 만큼의 극소량의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대기전력의 최소화를 실현합니다.
다밍(밝기 조절) 사용 시 LED조명의 전원부에 분할전원 공급 정치를 적용하여 50% 디밍시에도 100% 정동과 비례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여 정확한 소비전력절감이 가능합니다.

KUMKANG ENERTECH
LED LIGHTING SYSTEM

Global Trading & Investment Company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고로 남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664-6 TEL | 031.355.0058 FAX | 031.355.0028 www.kket.co.kr